



4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전주매일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윤 2월 3일) 제322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지역균형발전 건의 과제 공동성명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
광역도로망 건설 등 2개
지자체 자치조직권 강화 등
8대 공동협력과제도 채택
차기 의장에 김관영 도지사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 김두겸 울산시장)가 23일 롯데호텔울산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전북,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동서화합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제)동서교류협력재단의 운영현황 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체결, △차기 협의회 의장 선출로 진행됐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협력과제(8대)와 지역균형발전건의과제(2대)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공동협력과제는 △출산장려금 국가 지원사업 전환, △지역별 차등요금제 제도 시행, △지역자원시설에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4도(都) 3촌(村) 활성화제도 개선, △지방



23일 롯데호텔울산에서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등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건의과제로는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전주~김천 철도건설, 서해안 철도건설, 울산~전주 고속철도 건설 등 10개 노선), △영호남광역도로망 건설(무주~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등 2개 노선)이 채택됐다.

이와 더불어 시·도별로 계획하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캠퍼리,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즈대회

등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지원과 참여도 함께 약속했다.

아울러 제14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 차기 의장으로 김관영 전북도 지사가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1년이다.

김관영 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실질적 지방자치제 확립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재정권 확립, 자치조직권 보장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며, “영호남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과 영호남

시·도정의 각 분야별 시책 공조 강화를 통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협력으로, 영호남의 성장을 넘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 가자.”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돼 양 지역간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재훈기자

복지부 차관 “기금운용본부 이전, 사실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서울 이전설 관련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 갑)은 23일 제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질의를 통해 기금운용본부 이전설에 관한 보건복지부에 입장을 묻고 불필요한 논란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전혜숙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서울이전으로 “전북이 발각 뒤집히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

통령이 기금운용본부 서울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질의했다.

이에 이기일 차관은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미 국민연금법 27조에 전라북도 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수익률 하락 또한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어서 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전

북으로 이전한 후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건 인정하고 있는지 질의했고,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이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전혜숙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연기금이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고 서울에 소재한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역대 가장 낮은 마이너스 14.38%를 기록하고 미래셋 등 민간운용사도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말하며

대통령께 보고할 때 정확하게 보고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혜숙 의원이 “운영인력 이탈에 대해서도 예전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다”고 말하며, “기금운용 인력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그것은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김재훈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23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참석자들이 전북지역 대형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전북 아·태 마스터스 캠버리 성공 공동노력

전북도-관광공사, 지역관광 발전 협약 체결
“관광 수요 회복·관광산업 재도약 기회 희망”

전북도와 한국관광공사는 23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국제행사(2023 아태 마스터즈 대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캠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관광공사의 축적된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능력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시너지를 발휘해 전북 관광산업이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관련 △근거리 핵심시장 연계 상품개발 및 모객 프로모션 지원, △참가자 유치 확대, △행사장 내 한국관광 홍보관 운영, △사전·사후투어 지원 및 해외 홍보 강화, △대회 참가자·단체 개최지 이외의 지역 방문 시 지원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2023 새만금 제2회 세계스카우트캠버리 개최와 관련해 △전북도-한국관광공사 공동 K-POP콘서트 개최 및 공동 홍보 △콘서트 활용 관광상품 운영 지원, △행사장내 한국관광 홍보관 운영, △행사 개최지 이웃도어 이벤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의 지사와 연계된 국가별 여행사를 활용해 외국인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마케팅 활동으로 실질적인 전북 방문 수요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고 한국관광공사와 전라북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매력 있는 전북과 한국 관광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널리 알려 향후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코로나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대형 국제행사 2개가 전북에서 개최된 만큼 이를 계기로 전북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광수요의 회복과 관광산업의 재도약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홍보마케팅 채널을 통해 전북의 우수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알려 전북 방문관광객을 더욱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운영 지원, △행사장내 한국관광 홍보관 운영, △행사 개최지 이웃도어 이벤트 등을

/김재훈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